

위정부와 하위정부간에 수직적 재정 불균형(vertical fiscal imbalance)이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 세원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제는 조세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완벽하게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모든 조세의 썬기효과(tax wedge)²⁾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조세는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의 왜곡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할 때에는 명백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둘째,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 배분에 있어 정책 목표간에 위계(hierarchy)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암묵적인 전제로 한다. 이러한 예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중앙정부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국가에서는 주나 지방정부가 폭 넓은 자주적 정책 목표를 갖고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셋째, 전통적 세원 배분 방식은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관리와 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순수한 경제 이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세원 배분 방식은 순수한 규범적(normative) 차원의 이론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에 배분되어 있는 세원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세수가 많은 세목을 중앙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규범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요컨대, 전통적 공공경제학적 접근 방법은 세원 배분 이론은 현실을 설명할 수 없고, 현실을 개혁하는 데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채택할 경우 재정수요와 세입간의 불균형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 방식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접근이 아니라는 점이다.

2) 조세의 썬기효과는 조세의 부과에 따라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고급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동차의 판매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그 세금은 자동차 생산자의 판매 욕구와 구매자의 구매 욕구 사이에 썬기를 박는 것과 같다.